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2강 헬레니즘화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id Mathewson 박사의 신약 역사 및 문학. 강의 2, 역사와 헬레니즘화.

좋습니다. 이미 조용하시므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나서 신약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은 이번 주에 대한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의 일부 또는 다음 주의 대부분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약성서의 무대나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성서 문서 작성에 영향을 주고 요소로 작용한 신약성서 이전과 그 당시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성경이 출판되기까지 그리고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약간의 개요를 갖고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성서는 진공 상태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작가들은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빛을 발하고 영에 의해 영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냥 앉아서 이 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 문서 자체에 뛰어들기 전에 그것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특히 당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즉 당신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과 특정 시간 및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더욱 심오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시작해야 할 곳은 아마도 우리가 신약성서라고 부르는 이 그룹이나 저술 모음을 언급할 때 신약성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여러분과 제가 성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보통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성서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휘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한 가지이지만 일반적인 일상 언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 일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연결되는 것 외에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다른 문맥은 무엇입니까? 법정에서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유언은 오늘날 법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는 유언장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예를 들어 제가 죽은 후 내 재산의 분배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이나 유언장.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생을 떠날 때 당신의 소유물이나 소유물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법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Testament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ld Testament나 New Testament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실 이 말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2세기 말경에 살았던 터툴리안(Tertullian)이라는 사람이었으며, 3세기에 이르러 테르툴리아누스가 이 단어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문서 모음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문서 모음을 나타냅니다. 자, 터툴리안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툴리안은 우리가 종종 초기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개인이었습니다. 가끔 제가 교부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부(Church Fathers)는 사도들과 신약성경의 저자들 이후에 글을 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서나 언급이 일부 초기 문헌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서기 200년에서 400년경은 그 시기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도움이 되는 매우 귀중한 것들을 기록하고 종종 말하던 때입니다.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 그러나 성약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최종 유언장과 유언이라는 법적 맥락을 많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 단어 testamentum 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한 의미였습니다. 그걸 꼭 적으시거나 인식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약을 의미하는 이 단어 디아데케 는 주로 신약과 구약에서 언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미 구약성경을 공부하셨다면, 다양한 언약,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계약 또는 하나님과 맺으신 관계에 대해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민, 그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언약이라는 단어의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일련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립된 그의 백성과의 관계. 구약, 구약이 끝난다. 그 용어, 특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싶지만, 구약은 구약과 달리 언젠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나 기대감으로 끝난다.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시리라.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 언약이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세워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립되고 성취된 새 언약 관계를 증언하는 일련의 기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마지막 뜻과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약속되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인 언약을 증거하는 기록들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문서들이 바로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저작물들입니다. 이제 그것은 또한 구약성경에서 무엇이 그렇게 오래된 것인지, 신약성서에서 무엇이 그렇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용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것과 새 것을... 성경의 한 부분을 낡은 것으로 부르는 것은 다소 경멸적인 꼬리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낡았거나 구식이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더 나쁜 것,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바로잡아야 할 실수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는 경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서라고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성서는 구약 개관에서 공부하는 책이므로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흔하고 우리 대부분이 그런 용어로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할 때 부정과 긍정적, 열등과 우월, 낡음, 더 좋음, 더 최근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구약성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올 절정과 성취를 예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구약의 기록에서 이미 시작되고 예고된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절정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 히브리서의 처음 두 구절은 이 개념을 포착합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은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약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과의 구약 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증거하는 기록 모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 곧 마지막 날이 곧 지금이요, 이제 그 성취가 이르렀으니, 그 날은 구약이 가리킨 때라.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그 성취와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절정과 성취는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성경인 신약성서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가 열등하거나 업그레이드되거나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되며, 오래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취나 약속과 성취의 문제일 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이루실 것을 예상하고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성취를 이루셨고 신약성서의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이며, 적어도 구약과 신약이 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종 유언장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 처리, 배열, 합의, 그분이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 측면의 유언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적 총만함을 증거하는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문서들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관참은.

다음으로, 우선, 우리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신약 성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중 일부는 구약성서 조사 과정에서 친숙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성경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신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일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신약은 성경 전체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자 절정이기 때문에 나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성취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구약성서로 돌아가 특정 신약성서 문서가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읽은 내용을 어떻게 가정하는지 보여주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신약성서의 개요를 통해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신약성서, 그리고 바라건대 여러분 대부분이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것을 알아냈기를 바랍니다. 주로 시간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배열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신약성서에서 최초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 자부심은 야고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로마서와 바울이 쓴 다른 여러 책들보다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에 신약성경은 연대순보다 논리적으로 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책이 쓰여진 순서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신약성서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들조차 길이에 따라 배열되는 경향이 더 크다.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은 그가 쓴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길이순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편지에 이르면 로마서가 가장 길기 때문에 먼저 발견합니다. 대신에 신약성경은 연대순으로 다시 배열되어 있다.

아, 그건 그렇고, 이것은 단지 고대 그리스 사본의 그림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실제로 쓴 것과 대략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것은 서기 3~4세기쯤에 나온 고대 사본이라 꽤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옆에

있고 열에 단락 구분 및 기타 사항과 같은 몇 가지 표기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신약성서 본문에 대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번역본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오래된 사본의 원본 사본이 완전히 대문자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기체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작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개봉 원고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테스트나 그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주로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단어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Hildebrandt 교수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쓴 방식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나 글자 사이에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두점, 마침표, 쉼표 또는 물음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작업해야 했던 많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본이 없고 John의 원본 문서도 없지만 그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John의 글을 증언하는 매우 오래되고 품질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성경 문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배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4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그 이유는 기독교의 창시자, 즉 구약성서의 모든 기대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요 주제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서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자연스러운 다리를 제공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가 다른 문서보다 나중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복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사도행전은 이 예수 운동, 즉 우리가 예수에 의해 시작된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운동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좁은 경계를 넘어 더 큰 그리스어권 세계를 포용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나옵니다. 1세기.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론이거나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복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의 사건들과 예수의 사역,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이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과 좁은 국경보다 훨씬 더 큰 지역으로 퍼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 설명합니다.

팔레스타인? 결국 그것은 어떻게 1세기에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사도행전에서 신약성서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책들을 접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 중 하나인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실제로 일부였습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된 작품. 누가와 사도행전은 원래 함께 속해 있던 두 권이었지만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누가는 비슷한 다른 책인 마태, 마가, 요한을 따라가고 사도행전은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더 넓은 세상에 퍼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지.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에게 초대 교회의 확산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 매우 중요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바리새인, 실제로는 개종한 1세기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그의 이름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약.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편지가 신약성서의 다음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어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의 편지인 바울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빌레몬이라는 작은 책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의 편지는 종종 일반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 그룹으로, 단순히 사도행전에 소개된 다른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른 주요 인물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는 그들의 서신이 바울의 서신 이후에 신약성경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확실히 역사의 절정이나 목표, 절정을 연결하는 책으로 적합합니다. 온 우주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 계시록은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다른 책은 요한복음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1세기 말에 아주 가깝게 기록된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시다시피 신약성서에는 배열 방식에 대한 논리가 있습니다. 책이 쓰여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니지만, 구성 방식에서 일종의 논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신약성서가 기록되기 전과 기록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신약은 단순히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록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셨다면 확실히 더 간단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 매우 구체적인 문화와 장소, 매우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신약 성경을 만들어낸 상황과 상황에 대해 조금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넓은 붓질만을 그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신약시대의 역사, 그리스-로마 세계, 당시의 유대세계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로 전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 매우 광범위한 브러시 스트로크.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배경을 제공하고 신약성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주요하고 지배적인 운동이나 사건 또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정치 환경을 살펴보자.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그 시대까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Blackboard에 있는 귀하의 메모에는 매우 광범위한 붓놀림으로 여러 주요 기능을 나열했습니다.

정치 풍토, 정치 풍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위대한 장군의 출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개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 Kodak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이자 인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6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기 약 3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약 33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년, 즉 10년 동안 알렉산더는 세상을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아버지의 왕국을 확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왕국을 확장하여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가장 중요한 통치자 중 한

명입니다. 다음은 이것이 최선의 도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와 같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은 현대의 터키, 소아시아입니다.

여기 그리스예요. 여기에는 로마와 이탈리아가 있을 것이다. 여기 아래에는 이집트가 있으니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점선은 그 당시 매우 중요한 알렉산더 왕국의 대략적인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팔레스타인 땅인 예루살렘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서 왕국을 정복하고 그의 아버지가 확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왕국을 확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 유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했는데, 이 용어를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용어는 헬레니즘화입니다. 헬리나, 잠깐, 헬리니제이션.

헬레니즘화. 헬레니즘화란 헬라어와 문화의 확산을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어를 뜻하는 헬레스(Helles)에서 유래한 것으로, 헬레니즘화(Hellenization)는 그리스어와 문화의 확산과 전파를 뜻한다.

그래서 이 제국 전체를 통일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리스 문화, 종교, 그리스어를 제국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본거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그 어느 것도 헬레니즘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중 하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칠십인역(Septuagint)이라고 불리는 구약성서의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이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할수록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원래 아람어의 두 부분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헬레니즘과 헬라어 및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국 헬라어 번역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그 이유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더는 제국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제국인 대제국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속했던 페르시아 제국 이후로 다니엘과 구약성서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제 알렉산더가 죽자 다시 알렉산더는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알렉산더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제국에 대한 상속자가 없었고, 그것을 물려주거나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렉산더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약 320년 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즉 알렉산더가 죽은 후, 기본적으로 그의 장군들 사이에 누가 이 왕국을 물려받을 것인지를 놓고 투쟁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두 그룹 또는 두 장군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그렇게 간단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상황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 땅의 예루살렘 북쪽에 거주했던 그룹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로 돌아가면 여기 시리아가 보일 것입니다. 이곳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룹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남쪽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시리아 북쪽, 예루살렘 북쪽, 팔레스타인 땅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고, 남쪽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제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의 통치와 통치 아래서 시대를 거둬하며 자신들을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죽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집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오늘날의 두 강국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 하에서는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권력은 셀레우코스로 옮겨갔고 셀레우코스 통치 하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제는 앞뒤로 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그다지 평화롭지도 않았고 그다지 좋은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우코스 통치 하에서 이것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셀레우코스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부르는 통치자 중 한 사람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책이나 메모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략 기원전 175년에서 63년 사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통치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셀레우코스 왕조 중 한 사람입니다. 한번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성전을 약탈하고 모든 금과 모든 부를 빼앗았으며 실제로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설에 따르면 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제단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는 성전 이름을 제우스 신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 신 제우스로 바꾸었고, 이스라엘 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의 정점 또는 절정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잠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날짜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정말 정확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Judas Maccabees라는 개인이 나올 때까지 잠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의 노트에

있는 마카비 에 관해 언급하면서 , 대제사장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es)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려고 일련의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며, 이곳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힌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국 이교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Judas Maccabees는 Seleucids로부터 사원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종의 추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es)와 그의 일행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성전을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국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주요 세계 강국이 일어날 때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이 유다 마카비에 대해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가 성전을 해방했을 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헌납했고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헌납식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하누카는 성전의 자유와 재헌납, 재정화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둘러싼 전설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대략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음 제국이 탄생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메모에 따르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세계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이 기간 내내, 이 기간의 대부분 동안 로마는 실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지평선 위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기원전 63년, 60년, 예, 63년에 다음 세계 강국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바로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의 나머지 기간과 앞으로 한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인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전체는 로마 통치하에 있던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떠오르는 세계 강국인 로마는 실제로 왕국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은 1세기 로마 통치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방향을 바로 잡으면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현대의 터키, 소아시아,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로마가 있습니다.

스페인도 여기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보면 그 범위가 거의 현대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말까지 로마 통치의 규모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사실상 그 누구도 로마 통치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바울의 편지들에서 그가 보낸 거의 모든 편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들의 대부분은 현대 소아시아의 도시들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로마 통치의 온상이자 로마 제국의 온상 중 하나입니다. 규칙.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통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인들이 했던 일 중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아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일 중 하나는 이렇게 큰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로마는 그것을 속주로 나누고 각 속주를 통치하거나 통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 그들이 일부 지역을 통치한 방법 중 하나는 소위 클라이언트 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로마 통치에 굴복하거나 복종했는지에 따라 로마가 로마를 통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의 왕국의 특정 지역이 저항하고 싸우게 된다면

로마는 분명히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조용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때때로 로마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자국의 통치자를 임명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클라이언트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의뢰인 왕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로마 통치의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가 집중하고 싶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좋은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통치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선, 이제 제국 전체를 통합하는 공통 언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더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렉산더 대왕의 착취와 로마 통치로 인해 전체 제국을 통합하는 공통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삼중 언어를 사용했고 아마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들 중 상당수가 히브리어, 그리스어,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아마도 삼개국어 구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제국이 확장되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이제 전체 제국은 공통 언어로 통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상 상업과 일상 대화의 언어였고, 그것은 그리스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로마 통치 확산 현상의 두 번째 산물은 어떤 사람들이 파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부르는 것, 즉 로마의 평화입니다.

즉, 로마는 로마의 통치를 따르는 한, 로마의 혜택 중 하나는 로마가 당신에게 자유와 평화, 갈등과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에는 로마를 준수하는 데 많은 위험이 있었고, 여러분의 준수에 대한 대가로 로마는 평화, 보호, 전쟁 부재라는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진 교통체계와 통신이었습니다.

로마 통치가 확산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통신과 교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이점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약성서의 일부를 이해하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약성서의 일부 문서 자체를 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 가지를 로마 통치의 이점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용 언어인 파스 로마나(Pax Romana)가 제국을 통합하고, 평화를 약속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며, 준수할 경우 로마 통치 하의 보호를 약속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결과로 교통과 통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로마가 광대한 영토와 속주를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종속 왕을 통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특히 왕국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로마가 통치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와 지리적 장소를 합병하기 시작했을 때, 또 조용히 와서 싸우지 않고, 기타 사정에 따라 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다시 로마 통치의 허가를 받아, 로마의 통치를 준수하는 한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자를 임명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편지에서 잔인한 왕이라고 언급한 부하 왕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당신은 헤롯 대왕에 대해 읽었습니다. 당신은 헤롯이 실제로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린 왕으로 묘사되는 것을 읽었습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간 동안 다시 유대를 통치했던 종속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알려졌는데, 헤롯은 당신의 메모에서 이름이 암시하듯이 잔인한 왕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헤롯은 일종의 괴짜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와 다른 고대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매우 일치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헤롯은 사람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설사 그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왕좌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헤롯은 자신의 동지 집단에 속한 누군가가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어느 날 밤 수영장 파티를 열고 이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는 자신이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이 사람을 수영장에 익사시키도록 두 명의 부하를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의 행동은 실제로 성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롯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당시 베들레헴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아마 십여 명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의 헤롯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유대 민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주로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과 같은 건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로마 통치 기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종속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선, 로마 통치가 확산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즉 유대교의 또 다른 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한 기본적으로 용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에 불구하고 로마 황제 중 한 명인 네로 치하에서는 상당히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끌려나와 참수형을 당하고 경기장으로 끌려가 동물들에 의해 찢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1세기에는 그런 일이 꽤 드물었습니다.

산발적으로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일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로마는 기독교인을 내버려두는 데 만족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구약의 유대교와 같은 또 하나의 유대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과 분리되기 시작하거나 그들이 그것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전복적인 말을 하고 로마 통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1세기 기독교에 대해 생각할 때 로마의 모든 도시에 군인들이 행진하고 집집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거리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박해는 로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수준에서 발생했으며 특정 위치에서 더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로마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적어도 1세기에는 황제도 기독교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문제는 로마 제국이 아닌 기독교인과 관련된 지역 수준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 통치 하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많은 문제는 지역 수준에서 발생했으며 산발적으로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 로마제국이 확장되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질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어디까지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로마와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신약성서의 여러 문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가이사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로마 통치 하의 이교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로마 통치 하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여러 번 나올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매우 폭넓은 붓놀림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약 성서. 당신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의 압제 속에서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그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 왕이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좌에 왕이 없고, 다윗의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왕좌에 다윗의 자손이 없습니다.

이제 성전은 파괴되었고 약탈당했습니다. 그들이 둘러보는 곳마다 외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으며 외국의 통치와 억압, 이교의 영향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1세기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콘텐츠 아래에 메모와 강의 계획서가 있는 Blackboard의 어떤 섹션이 있나요? 어젯밤에 착용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무엇을 잘 모르겠습니다. 메모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에 오기 전에 방금 확인해보니 해당 메모와 메모가 모두 Blackboard의 콘텐츠 아래에 있습니다.